

종합·국제

“삼성특검 부실...검찰로 넘겨라”

천주교 사제단, 특검 면담 요구 불응

김용철 변호사를 도와 '삼성 의혹'을 처음 제기한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 소속 신부들이 27일 삼성 특검의 '부실·부실 수사'를 문제삼고 나섰다.

사제단측이 특검 수사에 불신을 드러내면서 현 상태가 지속될 경우 수사 협조가 어렵다는 입장을 밝힘에 따라 향후 수사에 차질이 예상된다.

1월10일 출범한 특검팀은 49일째 수사를 진행 중이며 1차 활동기간(60일)을 열흘 남겨두고 있다. 사제단 대표인 전종훈 신부와 총무 김인국 신부, 김진화·김영식 신부 등 사제 4명은 이날 오후 특검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삼성 특검의 수사의 지에 심각한 의문이 든다"고 주장하며 강한 불신을 표명했다.

신부들은 "사제단은 이참에 특검의 수사 의지와 능력에 대한 고민을 밝히지 않을 수 없다"고 운을 뗀 뒤 ▲특검의 이학수 부회장 독대 ▲소극적인 대안론-대국민 정보제공 태도 ▲로비 및 뇌물수수 수사 지지부진 등 특검팀 운영상의 문제점을 질타했다.

신부들은 이어 ▲이건희 회장 일가

와 이학수·김인주·최광해 등 핵심 임원 소환수사 ▲국제청·금감위·공정위 등 관계기관에 수사지원 요청 및 불응시 징계요구 등 특검법상 권한 행사 ▲경영권 불법승계 핵심피의자 기소 ▲중간수사 결과 발표 및 특검 로드맵 제시 ▲김용철 변호사 면담 등을 요구했다.

이들은 또 사제단이 제기했던 검찰 전횡적 고위 관계자 4명의 실명을 거론하며 '뇌물수수'의혹에 대한 수사를 촉구하고 "삼성그룹이 '삼성은 은혜를 잊지 않는다'며 특검측에 광범위한 로비를 하고 있다는 정보도 있다"고 특검팀을 압박했다.

특히 사제단은 "1차 수사기간이 10일 밖에 남지 않았다. 이렇게 지지부진한 특검이라면 차라리 그간의 수사 결과를 정리해 전문 수사기관인 검찰에 넘기는 수사를 맡기라"고 주장했다.

특검팀은 이날 오전 사제단과의 면담 일정을 밝히면서 "수사에 참고가 될 수 있으니까 부르는 것이며 필요하면 참고인 조사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사제단은 이어 ▲이건희 회장 일가



평양 공연을 성공적으로 마친 뉴욕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단원들과 취재진이 27일 아시아나 특별 전세기기를 이용,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하고 있다. 꽃다발을 받은 로린마젤(사진 앞쪽) 뉴욕필 지휘자.

“뉴욕필 평양 공연 바람직한 진전”

라이스 미국무 “북미관계 개선은 핵에 달려 있어”

미국 정부는 26일 뉴욕필 하모닉 오케스트라의 평양 공연을 민간차원의 문화교류로서 이를 적극 지지하지만, 북미관계 개선은 북핵 합의의 이행 여부에 달려 있다고 강조했다.

뉴욕필 평양 공연과 관련 “문화교류는 좋은 일”이라며 향후 북한과의 문화교류는 바람직한 진전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미국 국무부 부대변인인 라이스 장관은 “북한은 분명히 개방에의 문화가 될

요한 사회로서, 뉴욕필의 공연으로부터 북한 정치의 본질이 바뀌기까지는 머나먼 길이지만 문화교류는 바람직한 일”이라고 밝혔다.

라이스 장관은 또 “우리는 북핵문제에 극도로 집중해왔고, 그것이 관건이지만 미국은 북한 주민에게도 관심이 있다”며 “나는 북한 주민과 학생들, 기타 다른 사람들이 미국에 오는 걸 보고싶다”고 말했다.

톱 케이스 국무부 부대변인도 뉴욕필의 평양 공연은 미국 정부와는 별개로 이뤄진 ‘민간차원의 중요한 문화교류’라고 평가하고 “우리는 이를 지지하며 앞으로 비슷한 종류의 활동들을 지원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케이스 부대변인은 “북한 주민들은 외부 세계로부터 대단히 고립돼 있다”며 “교류를 통해 북한 주민들에게 바깥 세계의 일부 문화를 열어주는 것은 나쁜 일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케이스는 그러나 뉴욕필의 공연 같은 일들이 “북한 지도부와 정책에서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는 현실적이어야 한다”며 “북미 간의 관계 발전은 핵문제의 진전과 깊이 연계돼 있다”고 강조했다.

뉴욕필 서울 도착 김정일 못 만나고 北 떠나

뉴욕 필하모닉 오케스트라가 역사적인 평양 공연을 마치고 서울에 도착했다.

그러나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은 당초 기대와는 달리 끝까지 모습을 보이지 않아 김정일 위원장과 뉴욕필의 상봉의 기회는 끝내 무산됐다.

로린 마젤이 이끄는 뉴욕필 단원과 각국 취재진 260여명은 27일 오후 1시55분 ‘아시아나항공 1004’편으로 평양 순안공항을 출발, 2시50분께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다.

뉴욕필은 28일 서울 예술의전당에서 한국 음악 애호가들에게 베토벤의 ‘에그몬트 서곡’, 교향곡 제5번 ‘운명’,

피아노 협주곡 2번 등을 선사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평양 순안공항에서 송석환 북한 문화성 부상 겸 조선예술교류협회 회장과 김종식 평양시 인민위원회 부위원장, 김연규 조선국립교향악단 단장이 환송했다.

송 부상은 “이번 공연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돼 기쁘다”고 말했으며 로린 마젤은 “조선국립교향악단을 지휘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돼 행복하다”고 말했다.

뉴욕필은 27일 오전 10시부터 1시간 동안 평양 모란봉극장에서 북한의 조선국립교향악단과 사상 처음으로 실내악 협연을 가졌다.

전군표 前국세청장 징역 3년6개월 선고

인사청탁의 대가로 돈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군표(54) 전 국세청장과 돈을 준 정삼권(54) 전 부산지방국세청장에 각각 징역 3년6개월과 징역 4년의 실형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제5형사부(재판장 고종주 부장판사)는 27일 인사청탁의 대가로 정씨로부터 8천만원(현금 7천만원+미국 1만달러)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돼 징역 4년에 추징금 8천만원이 구형된 정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징역 3년6개월에 추징금 7천940만원을 선고했다.

정동영 前 장관 불구속 기소 검토

17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비롯한 각종 고소·고발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오세인 부장검사)는 ‘비방 광고’ 등과 관련해 대통령인수신당 후보였던 정동영 전 통일부 장관을 불구속 기소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27일 “정동영 전 장관이 뚜렷한 이유를 밝히지 않은 채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고 있다”며 “이렇게 되면 직접 조사를 하지 않고 기소하는 방안도 고려해 보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오바마 ‘대세론’ 확산 전국지지율 첫 50% 돌파

미국 민주당 대통령 후보 경선의 최대 분수령이 될 내달 4일 ‘미니 슈퍼 화요일’을 앞두고 ‘오바마 대세론’이 확산하고 있다.

USA투데이는 지난 21일부터 24일까지 2천21명(민주당원 1천9명, 공화당원 829명, 무당파 183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한 결과 민주당 및 민주당 성향 무당파 층에서 버락 오바마 상원의원이 51%를 얻

어 39%를 확보한 힐러리 클린턴 의원을 12% 포인트 앞섰다고 26일(현지 시각) 보도했다.

오바마가 전국 단위 여론조사에서 과반 이상의 지지를 차지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특히 민주당원 및 민주당 성향 무당파 응답자 10명 가운데 7명은 오바마가 민주당 대선 후보가 될 것이라고 답변했다.

오바마는 25일 CBS와 뉴욕타임스(NYT)가 발표한 전국 단위 여론조사에서도 54%의 지지를 얻어 38% 지지에 그친 힐러리보다 16% 포인트나 높았다.

러시아 대선 푸틴 후계자 독주

블라디미르 푸틴의 후임자를 뽑는 러시아 제 5대 대통령 선거가 나흘 앞으로 다가왔다.

내달 2일(현지 시각) 실시되는 대선엔 여당인 통합러시아당의 드미트리 메드베데프(42) 제 1부총리, 공산당의 겐나디 주가노프(63), 자유민주당의 블라디미르 지리노브스키(61), 민주당의 안드레이 보그다노프(38) 등 총 4명이 출마했으나 푸틴 대통령이 후계자로 지목한 메드베데프가 압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주가노프와 지리노브스키는 이번이 4번째 대선 도전이며 지리노브스키와 보그다노프는 폭넓게 해석하면 친(親)크림린 성향으로 분류되고 있다.

지난주 말 ‘브치움’이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메드베데프가 72.9%의 지지를 보인 반면 주가노프는 15%, 지리노브스키 10%, 보그다노프는 1%에 그쳐 이런 결과가 투표 당일에도 그대로 표로 반영될 경우 메드베데프의 압승이 점쳐지고 있다.

Advertisement for '공인중개사 전국수석' (Public Broker National Top) with details on training and exam preparation.

Advertisement for '공인중개사 전문학원' (Public Broker Specialist Academy) and '행정고시학원' (Administrative Exam Academy).

Advertisement for '국비지원 훈련생 모집' (Government-subsidized trainee recruitment) and '현대직업전문학교' (Modern Vocational College).

Advertisement for '7·9급 공무원' (7th and 9th grade civil servant exam) and '무등고시학원' (Mudeung Exam Prep School).

Advertisement for '7급 공무원 합격 대특강' (7th grade civil servant exam success seminar) and '한빛공무원학원' (Hanbit Civil Servant Academy).

Advertisement for '마술 (Magic) 무료 수강생 모집' (Magic free student recruitment) and '매직&매직 아카데미' (Magic & Magic Academy).